



**문화관광부
브리핑**

제 12호 2003년 8월 8일(금)

공보관실 TEL.02-3704-9040~8 / FAX.3704-9049

한국출판 세계화 본격 추진

우리부가 본격적으로 우리 출판물의 세계화 지원에 나섰다.

우리부는 한국출판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수도서번역출판지원사업"의 지원작품에 "사물놀이 이야기"(사계절), "고양이 학교"(문학동네) 등 25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출판물에 대한 번역으로 우수한 우리 출판물과 문화의 해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03 우수도서번역출판 지원사업" 선정은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된 52개 출판사의 154종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과정은 「우수도서번역출판추진위원회」(위원장 : 김여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가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신청도서를 심사하여 총 36종을 선정하였으며(예비도서 5종 포함),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25종의 도서를 선정하여 번역출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분량과 내용에 따라 1종당 700~3,000만원 상당의 번역·출판비용을 지원하여 내년 초까지 번역·출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하여 번역·출판되는 도서는 해외문화홍보원, 한국(학) 관련단체·연구소, 대학 도서관 등에도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주요 국제도서전에 특별 전시하고 적극적인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우리부가 지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문화계, 출판계, 학계의 역량있는 인사들을 위촉하여 「우수도서번역출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우수도서번역출판사업을 운영토록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 우리부는 한국출판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 시장에서 문화산업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도서를 지속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스를 넘어 중국 관광객 적극 유치

이창동문화관광부 장관은 「한·중·일+아세안 관광장관 특별회의」 및 「한·중 문화관광 교류행사」 참석을 위하여 8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베이징 China World Hotel에서 개최될 「한·중·일+아세안 관광장관 특별회의」는 한·중·일 및 10개 아세안 회원국가 등 13개국 장관급 인사가 모여 사스 이후 급격히 위축된 아시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국가간 상호협력력을 강조하는 "베이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별회의에서 이창동장관은 '사스로부터의 교훈 및 한·중·일+아세안 국가간 관광협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역내 국가간 관광교류 증대가

21세기 아·태 관광시대를 여는 관건임을 강조하고, 사스·전쟁·테러 등 관광 위해요인으로 부터 여행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표준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8월11일 베이징전람관극장에서는 우리부와 중국문화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스퇴치 기념, 한·중 문화관광 교류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 한국측은 테너 김남두, 소프라노 이현정과 보아, 강타, 문희준, 다나, 블랙비트가, 중국측 역시 남여 성악가와 한홍, 장요, 순난 등 양국의 대표적인 성악가와 대중연예인이 출연한다. 공연에는 베이징국립교향악단 및 합창단이 협연하며, 전 내용이 중국중앙방송을 통해 중국전역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8월12일에는 중국대만점에서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협회, 여행업협회, 인천공항공단, 위커힐, 중국전담 여행사 등이 참가하는 한국관광 교역전이 중국 여유국 및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기사

2면

- 「2003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 학술부문」 선정 발표
- 정례 브리핑

3면

- 「청소년전용 여가문화시설」 확충계획 추진
- 그건 이렇습니다

4면

- 금주의 정보공개
- 금주의 확대간부 회의
- 다음주 주요 행사



「2003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 선정 발표

우리부는 8월 7일, 지식문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학술출판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2003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학술부문」 선정사업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 종수는 총류·어학 20종, 종교·철학 23종, 사회과학 55종, 순수과학 16종, 기술과학 38종, 예술 20종, 문학 35종, 역사 23종, 문화일반·문화재 20종 등 모두 9개 분야 250종이며, 127개 출판사의 책이 선정되었다.

올해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 심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발행되어 2003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신청 접수된 2,684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과정은 각 분야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40명의 심사 위원회에서 전체 예비심사, 분야별 전문심사, 전체 본심사 및 최종 심사 등 모두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학술출판 저변확대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더 많은 출판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개 출판사의 최대 선정 종수를 5종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추천도서(학술부문)에 대하여는 1종당 940만원 상당

(총 23.5억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해외홍보원 등에 보급할 계획이며, 「2003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표시 출판이 허용된다.

우리부는 학술출판을 장려하고 건전한 양서 출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부 입장

지난 8월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우리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민간주도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당국 간 협의 등 정부차원의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창동장관은 향후 대북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지 기자들의 질문에 “(컨소시엄 구성안의)내용은 모르지만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 관련〉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개인의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가 미흡하여 구제요구가 계속되어 옴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의 질적인 제고 및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내 언론 피해 상담센터의 설치와 민간 자율기구인 신문위원회에 음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이에 이창동 장관은 등록기자들에게 언론피해상담센터는 구체화 단계에 있고, 음부즈만 제도는 검토단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언론탄압이나 견제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청소년전용 여가문화시설』 확충계획 추진

우리부는 청소년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 가는 인라인스케이트, 풋살(5인제 미니축구) 등의 신종 레저스포츠와 음악과 영상활동 등 문화활동을 마음놓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전용 여가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등)은 현재 670여 개소에 이르러 그 동안 수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각종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으나,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되어 야외에서의 활동은 실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부는 특히 주5일제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마음놓고 쉽게 모일 수 있는 일상생활권내에 있으면서 주위환경이 좋은 공원, 광장, 강과 하천둔치, 그리고 학교 운동장 등의 공간일부를 활용,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장 등 레저스포츠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거쳐 시설모형을 개발하고, 2007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대상장소 또는 공간규모에 따라 '생활권 지역'과 '도심권 지역' 등으로 구분, 전국에 200여 개소를 목표로 매년 50개소 내외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에도 레저스포츠시설과 함께 녹음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실과 영상물 시사·편집실 등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은 내부구조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건립하는 시설은 기준사업비를 증액하여 여가문화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부는 앞으로 청소년이 좋아하는 야외 레저스포츠와 음악·영상 등 문화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한결같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찾고, 즐기기'를 원하는 기본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층 높아진 자발적이고 활력적인 청소년의 참여의식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되도록 '청소년전용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이렇습니다.

옴부즈맨 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관한 우리부 입장

동아일보가 8월 5일자 A8면의 「언론 의견-논평도 통제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이 "옴부즈맨 제도를 '심의윤리위'에 만들겠다"고 말하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비판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창동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한 발언에서 '신문윤리위원회'라고 말하였고, '심의윤리위'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이는 당시 토론회를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이창동 장관이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라고 보도한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문화한국, 문화시민

새로운 시대 문화가 함께 합니다

문화관광부 브리핑

제12호 2003년 8월 8일(금)

금주의 정보공개

문화관광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개 등

■ 문화관광부 장·차관 2003년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우리부는 지난 8월6일 「정보공개자료방」을 통해 장·차관의 2003년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장관의 집행내역은 총 2,310,200원으로 주요정책추진관련 회의 및 행사비(3회 206,000원),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8회 904,200원), 위문·격려 등 사기 진작 및 경조사비(5회 1,200,000원)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관의 집행내역은 총 1,916,000원으로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5회 956,000원), 위문·격려 등 사기 진작 및 경조사비(7회 960,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 중앙인사위에 문화관광부 성과지표 제출
우리부는 중앙인사위에 7개의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부는 성과지표로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광주문화수도 육성, 예술창작 역량제고와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대외경쟁력 제고, 국민관광 향수권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전용공간 확충 및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창의적 청소년 육성 등을 설정하였다.

■ 「청소년 책임기 사업」 추진
우리부가 「2003년도 청소년 책임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신청한 도서교환권배포사업과 독서캠페인홍보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MBC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의 진행자 김용만씨와 유재석씨를 「청소년 책임기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문화방송에 후원기관 명칭 및 로고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자료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확대간부회의

문화관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반 운영 등

지난 8월4일(월)에 열린 금주의 확대간부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큰 틀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부내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정부 문화관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반을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 2008년도를 개관목표로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비 등의 용도로 내년에 249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

또한 미국내 한국관련 자료 수집사업을 향후 현지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 4월22일 (재)국립극장발전기금이 설립되어 현재 후원회가 구성 중이며, 모금된 기금은 예술 아카이브 조성, 장학사업 등 신규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 2009년 마무리 예정인 경복궁 복원계획에 따라 현재 민속박물관의 이전 관련 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며, 중앙박물관의 건립준비

과정과 결과를 참고하여 면밀히 이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주 주요행사

- 대구U대회 선수촌 보도진 공개 및 개촌식
-8/11, 8/14, 오전 11시, 대구U대회 선수촌
- 제7회 SICAF 행사 개최
-8/12~8/17, 서울 코엑스
- 제6회 한·중 청소년 문화제 개최
-8/13~8/20, 중국 심양